

2008년 농림업생산액 39조 6,626억원

- 2007년 대비 10.7% 증가
- 농업생산액 38조 4,698억원(10.9% 증),
임업생산액 1조 1,928억원(3.5% 증)

〈자료제공 :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담당관실〉

-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각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농림업 생산액이 2007년 35조 8,372억원보다 3조 8,254억원(10.7%)이 증가한 39조 6,626억원 이라고 밝혔다.
 - 그 중 농업생산액은 38조 4,698억원으로 '07년 34조 6,850억원보다 3조 7,848억원 (10.9%)이 증가하였으며,
 - 임업 또한 1조 1,928억원으로 '07년 1조 1,522억원보다 406억원(3.5%)이 증가하였다.
- 농업부문 중 식량작물 생산액은 10조 6,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.0%, 과실은 2조 9,984억원으로 전년대비 6.2% 증가하였으나, 채소는 7조 2,135억원으로 전년대비 3.6% 감소하였다.
 - 전체 농림업생산액 중에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량작물·채소·과실 부문 이 각각 26.7%·18.2%·7.6%로 나타났다.
 - 2008년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34.3%를 차지하는 축산부문의 생산액은 13조 5,929 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3,156억원(20.5%)이 증가하였다.

□ 2008년 농림업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

- 농업 중 재배업의 경우 2007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아 미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, 미곡, 과실, 특용작물 등의 농가 판매가격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6.3% 증가하였다.
- 축산 부문은 생산두수 및 축산물생산량 증가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이 20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 임업부문 생산액이 소폭(3.5%) 증가한 것은 용재, 수실, 약용, 산나물 등의 생산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.

□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미곡, ②돼지, ③한우, ④우유, ⑤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, 이들 5개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49.9%를 차지하였다.

- ⑥계란, ⑦오리, ⑧수박, ⑨건고추, ⑩인삼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62.6%로 나타났다.
- 또한, 20위까지의 품목생산액이 전체생산액의 77.7%, 30위까지의 품목생산액이 전체생산액의 85.1%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소비감소에서 벗어나 소비가 확대된 오리가 '07년 15위에서 '08년 7위로 진입한 반면, 배추가 '07년 11위에서 '08년 16위로 토마토가 '07년 13위에서 '08년 17위로 하락하였다. ☞